

56. 너희들의 마음은 나의 향기로운 동산이야! 나의 초대를 거부하지 말아라.

2015.04.25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나의 소중한 자녀들아, 너희들을 판단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혹은 다른 죄들을 일으키는 모든 유혹들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가 다른 보통 때보다 더 강렬해보인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신부들을 모든 이기적인 동기에서, 모든 얼룩과, 주름, 그리고 흠을 깨끗하게 하여 나의 신부들이 내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해.

나의 신부들은 이 때에도 꽤 아름답지만 항상 개선을 해야할 곳이 있어. 그래서 나의 신부들을 지금 이순간보다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더 많은 시험들과 적들로부터의 더 많은 유혹들을 허용하는 이유야.

이러한 시험들에 지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결점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것 역시 자만함의 표시야.. 완전해지기를 기대하고 불완전한 것들을 찾아라. 오히려 겸손한 영혼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결점들에 조금도 놀라지 않아. 어떤 반대되어지는 것이 일어날때, 너희들에게 정죄가 가해질때 그것은 항상 미덕의 시험이야.

이것들은 너희들을 공격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이 말했던 내용에 진심이 있었는지를 잠시 생각해보라는 나의 초대야.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다윗의 측근들이 시므이를 죽이고 싶어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다윗처럼. 다윗은 말했어. “그를 내버려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어라. 여호와께서 나의 비참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그의 언약의 축복을 나에게 회복시켜주실지도 모른다.”

이 자세가 박해받는 나의 종들에게 내가 바라는 자세야. 분명하게 독선으로 일어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어. 그러니 내 사랑들아, 항상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비난하거나 정당화시키려는 원한을 복종시켜라.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상관이야?

이 미덕의 시험들이 이 때에 나의 신부들에게 허용된 시험들이야. 육체는 내면의 연약한 것을 보호하려는 생존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려운 시험들이야.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다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아. 그러면 나는 나의 손을 너희들에게 뻗으면서 말할 거야. “이리 올라와라, 나의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옆에 앉아라.

나의 모든 소중한 신부들아, 너희들의 마음에 한 점의 원한이나 판단도 없게 해라.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되, 모든 것을 너희들의 마음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해라. 입술은 여전히 마음의 숨어있는 방에 남아있는 것을 항상 드러내지 않아. 나는 정말 너희들 모두가 이정도로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 나는 나의 달콤한, 엄청나게 달콤한 나의 위안과 은혜를 너에게 부여할 거야. 내가 최고의 포도주에 맞는 반짝이고 깨끗한 그릇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 내가 이러한 그릇들을 채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중상과 멸시에 너희들의 마음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들의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보내어진 것들이야. 이러한 나의 애정의 표시들로 빛나는 영혼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천국의 보석 면류관에 장식할 귀중한 보석으로써 받아들여라. 오 그래, 이것이 얼마나 육체와 세상의 기준에 반대되는 일인지.

비방.. 귀중한 보석? 그래, 정말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의 미덕은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저주대신 축복으로 보답할 때 빛을 발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관찰하고 모든 심장박동은 나에게 대한 너희들의 사랑을 전달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모방하기 때문이야.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주세요.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경멸과 멸시, 거부, 굴욕이 거룩해지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그 가치를 거의 깨닫지 못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나의 세상에서는 그들의 이웃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자하는 말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인식하라는 것이야. 그것들은 육체의 본성을 뛰어넘고 황금의 무게만큼 가치있는 도전들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나에게 기대고, 나에게 감사하고, 내가 나의 몸에 채찍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라.

제발 이 말들을 매도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역경에 직면하여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너희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완전함과 생명의 말들이야. 나는 그 화살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깊이 관통한다는 것을 알아. 그 화살들이 더 깊게 들어갈수록 그것들은 너희들의 성품을 흠없는 나의 신부들로 형성시키는데 더 가치가 있어. 그것들은 너희들의 진정한 속마음을 드러내므로 그 상처들에서 쓴 쓸개즙이 아니라 달콤한 꿀이 흐르도록 하게 해라.

(클레어) 주님, 휴거는요?

(예수님)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지?

(클레어) 층층나무 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떨어지지 않지.

(클레어) 오, 예수님. 주님은 다시 회피하시려고 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너는 다시 낚시질을 하고 있어.

(클레어) 제발요 주님,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저희 모두는 저희 뒤에 쌓인 의심의 어두운 구름과 함께 기대에 매달려있어요., 의심이 저희들의 희망을 빼앗아가려고 위협하고 있어요. 희망이 더디면 마음을 병들게하지만 소망의 성취는 생명의 나무와도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부재는 마음을 더 애뜻하게 만들어.

(클레어) 그건 성경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 맞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야. 나는 나의 모든 신부들에게 미안해해. 우리는 모두 함께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희들의 힘을 새롭게 할 거야. 날마다 거룩함과 결심이 자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야?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큰 열매가 있으니 빨리 떨어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아직도 추수를 하면서 모으고 있고, 온갖 모든 시험들을 견뎌내는 너희들의 인내심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달콤한 향기야. 그 향기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이끌려지고 있어. 그러니 잘하는 중에 지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

너희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해라. 나는 너희들 각각 모두와 함께하면서 나와 함께하려는 너희들의 마음의 달콤한 갈망을 관찰하고 있어. 이것도 향기를 발산해. 너희들의 마음은 사랑의 꽃들이 끊임없이 향기를 발산하는 천국의 동산이기 때문이야. 곧이야 나의 사랑들아. 곧이야.

지금 이 말들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성장하기 위해 너희들의 힘과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받아라. 너희들 각각은 귀중한 꽃이야.

나는 너희들을 소중히 여겨.